

●●● 임병규 본지 편집위원장(주)한국축산의희망서울사료 이사회 이사장

주은래(周恩來)의 육무(六無) 처림...



월간양계가 지난 1969년 11월 창간이래 이달로 38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본고는 창간당시부터 월간양계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고 현재까지 편집위원으로 활약하면서 양계 역사를 함께 써온 임병규 본지 편집위원장을 만나 월간양계 발간의 의의와 양계 산업 발전방안을 들어보았다. 1956년 충북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국내 양계산업이 태동할 당시인 1957년에 양계업계에 입문한 임병규 회장은 현재까지 (주)한국축산의희망서울사료의 이사회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45년동안 양계업계에 몸담아 오고 있다.

◀ 임병규

1956년 충북대 축산학과 졸업
1962년 (사)한국가금협회 간사
1965년 동신중축장(현 한협육종 전신) 전무
1979년 서울사료(주) 생산부장
1994년 서울사료(주) 대표이사
1969년 월간양계 편집위원(88-현재, 편집위원장)
현재 (주)한국축산의희망서울사료 이사회 이사장

한국가금협회 설립에 중추적 역할

1960년대 양계산업은 마당닭 형태의 사육방식을 탈피해 새로운 사양기술 보급, 외국으로부터의 신 품종 도입 등 양계산업의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었다. 임병규 회장은 당시 동신중축장(대표 박도현, 현 한협육종 전신)에 근무하면

서 농가 사양기술 보급은 물론 양계업 발전에 혼신을 다했다. 그러던 중 감별, 초생추, 가금연구회 등으로 분리되어 이루어지던 양계산업을 하나로 묶는 실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사)한국가금협회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모든 서류를 정비하고 정부에 인가를 받는 실무를 맡아 1962년 (사)한

국가금협회가 설립되었다.

당시 오봉국, 이재근, 한인규, 오세정, 최창해, 민덕기 교수 등 학계인사들은 물론 박도현, 김현배, 강금노, 이창렬, 이계조, 김원복, 김형석 사장 등 부화업계 대표, 윤경중 감별사 대표 등이 주축이 되었다. 처음 발족한 (사)한국가금협회의 살림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다. 오봉국 교수가 1964년에 만든 '육추일지'를 부회장을 통해 협찬을 받고 농가들에게 전달해주면서 자금을 조달받는 정도가 전부였고 이를 통해 사양관리 등 강습회를 마련하여 농가들에게 사양기술 및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힘썼다.

월간양계 탄생의 의미

(사)한국가금협회가 설립된 이후 농가들에게 우수한 병아리를 공급할 목적으로 '산란계능력검정사업'이 시작(1966년 4월)되었다. 경기도 광주종축장을 빌려 시작한 검정에서는 임병규 회장이 근무하던 동신종축장이 오봉국 교수의 자문을 받아 육종된 품종의 성적이 타품종에 비해 가장 우수했었다. 하지만 1965년 하이라인이 처음 도입되면서 동신병아리와 월등한 차이를 보였다.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그후 천호부회장(대표 이계조)에서는

유리브리드사의 지원을 받아 마니커와 마니나 품종에 대한 육종과 보급을 시작하기도 하였다. 이후 하이라인, 아바에이커 등 현재의 품종들로 사육계군들이 급속히 바뀌어 나갔다. 강습회를 통한 사양기술, 품종도입에 대한 생산성 향상, 검정사업을 통한 우량품종 제공 등이 어우러지면서 양계산업이 근대, 현대 양계산업으로 발전하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1969년 11월 '월간양계'가 탄생한 것이다. 오봉국 회장을 주축으로 필요성이 인식되었고 비타민헤드쿼터스(현 바이엘화학의 전신)에 근무하던 신정재(현 에스에프 회장) 사장이 적극 나서 월간양계의 창간에 불을 당겼다. 당시 김영욱, 이재식, 신동욱씨 등이 한국가금협회 설립과 월간양계 제작에 전념하였다. 원고 1편을 받기가 무척 어려웠던 당시이기 때문에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발간에 필요한 자원마련을 위해 광고협찬이 가장 요구되던 시기였다. 임병규 회장은 당시 부화업계를 규합하여 월간양계에 광고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결간없이 월간양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처럼 임병규 위원장은 창간호 이후부터 월간양계 편집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초창기 매월 고정란을 마련하여 사양관리를 기고함으로써 농가의 사양기술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 1988년부터 본지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병규 위원장(편집위원회 개최장면)(좌), 1969년 11월에 창간된 월간양계 창간호 표지(우)

가격과 품질로 승부한 사료산업

임회장은 동신부회장을 떠난 뒤에도 바브콕원 종농장 등 양계와 관련된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왔다. 협회와 부회장의 큰 물줄기를 잡은 임병규 회장은 60년대 말 제2의 인생에 도전하였다. 1979년 서울사료에 생산책임자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69년도에 설립된 서울사료는 입사할 당시 7가지 종류의 양계사료만을 생산하였고, 생산량도 월 4천톤을 밑돌 정도로 열악하였다. 임 회장의 왕성

한 경영활동 결과 양돈과 소사료까지 생산분야를 확대하였고, 한 때 월 7만톤까지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94년 서울사료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임회장의 경영스타일이 적극 발휘되었다. 노조가 없는 회사를 유지할 정도로 직원들간의 화합을 중시하고 현실적인 면을 경영에 반영시켰다.

임병규 회장이 간부들에게 항상 주시시키는 경영철학이 있다. '사료는 소비재가 아닌 원자재'라는 것이다. 즉 품질과 가격을 사양가들이 만족하면 어느 조건이더라도 서울사료를 찾을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사료는 영업활동을 최소화하고 품질과 가격으로 농가들에게 파고들었다. 또한 현찰이 아니면 사료를 판매하지 않았다. 따라서 서울사료를 사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농가들에게 용자를 받아서라도 현찰을 구매토록 설득하였다. 그것이 외상을 하고 비싼 타 사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유리하고, 몇 개월이 안 되어 이익을 가져오면서 서울사료가 좋다는 것을 농가들에게 인식시켜 나갔다. 즉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을 농가들에게 자연스럽게 가르친 것이다. 이러한 경영전략은 타 회사들로부터 공격과 질타를 받기도 했으나 농가들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오히려 국내 양계산업을 성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업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임병규 회장은 번잡한 결재체계를 간소화시켜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선 시행 후결재 방식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였다. 결재가 빠른 반면 시행착오의 위험성도 있었으나 오히려 회사에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기업들의 도전이 거세지기 때문에 중소기업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빠르고 기민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소비홍보에 관심

임 회장은 자조금사업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포장만 잘 돼도 잘 팔리는 시대이니 만큼 아이디어창출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돈을 들여서라도 계란과 닭고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소비를 늘려가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강조한다. 과거 양계 초창기 때 양계 강습회를 매월 개최하면서 농가를 계도할 수 있었던 것도 십시일반 주머니에서 자조금을 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금은 거출액의 100%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업계에서 힘을 모아 자조금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가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 설명한다.

자조금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나만 생각하는 욕심이 앞서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모든 욕심이 재산을 축적하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면 무슨 일든 정의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 좋은 예로 임회장은 중국 재상을 지낸 주은래(周恩來)의 육무(六無)를 언급한다. 그는 중국의 최고의 권력인 총리를 지내면서 6가지의 욕심(후손, 유언, 권력남용 등)을 과감히 버리며 중국인들의 영원한 총리로 추앙받고 있는 인물이다. 양계업계도 업계의 발전을 꾀한다면 이러한 정신을 새겨볼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양계협회 조직도 각 산업별(육계, 산란계, 종계·부화, 토종닭 등) 협회내지 전문화를 시키고 이를 양계협회가 연합회 형식으로 총괄하는 형식으로 이끌어 나아가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이는 창구를 일원화하여 업계발전을 기하자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양계협회 새로운 조직에 대해 폭넓게 연구하고, 새롭게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임 회장은 최근 전 세계의 양계산업 흐름을 인터넷이나 양계관련 외국 신문과 잡지 등을 통해 번역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는 등 양계업계에 대한 집념과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 (정리 | 김동진 편집장, dj@poultry.or.kr)